

농어촌 복지수준 대도시 앞질렀다

담양·보성군 최우수 등 전남 7곳 우수기관 선정

복지부 정책 평가 ... 지자체별 노인 복지 큰 차이

전남 지역을 포함한 전국 농어촌 자치단체의 복지수준이 대도시권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최근 전국 232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2008년도 복지정책 평가결과 전남지역을 비롯한 농어촌의 복지 평균점수(100점 기준)가 2007년 60.8점, 2008년 61.9점에서 2009년 68점으로 크게 향상되면서 처음으로 대도시 66.5점을 넘어섰다.

또 최고점을 받은 곳은 농어촌 지역이었고 최저점을 받은 지자체는 대도시 지역이었다. 평가 부문은 복지총괄, 노인복지, 아동·청소년, 장애인복지 등 9개 분야다.

복지부는 이같은 평가 결과를 재정이나 시설 등 복지 인프라가 부족하더라도 지자체의 복지에 대한 관심과 노력에 따라 수준이 향상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진단하고 있다. 전남 지역에서 담양군과 보성군이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등 모두 7곳이 우수기관으로 뽑혔다. 이는 전국 16개 지자체 가운데 전북(10곳), 강원(9곳)에 이어 3번째로 많은 숫자다.

부문별로 종합 최우수 자치단체는 담양, 보성군, 우수 자치단체는 화순, 영암군이 차지했다. 곡성군은 장애인복지, 구례, 강진군은 발전 부문 우수 자치단체로 뽑혔다.

광주 지역에서는 서구와 광산구가 종합 평가에서 우수, 준우수 구로 선정됐다. 서구는 3년, 광산구는 2년 연속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그러나 지자체별로 노인복지와 장애인 복지 분야의 격차가 큰 편으로

나타났다.

또 자활, 재정 분야에서는 전년도보다 수준이 나아졌으나 아동·청소년 분야에서는 전년도보다 복지 수준이 떨어졌다. 1천점 만점을 기준으로 최고 평점(787점)을 받은 지자체와 최저 평점(579점)을 받은 지자체간에 208점(35%)의 차이를 보였다.

복지부는 28일 전남 전남 지식경제 공무원교육원에서 전제회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복지 정책평가대회를 열고 최우수 지자체에 9천만원씩 특별 지원금을 전달하는 등 67개 지자체에 35억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영어스쿨 선발 시험

(www.gwangju.go.kr)에 공고된다.

26일 전남대학교 자연대에서 '2015광주하계유니버시티드 영어스쿨' 교육생 선발을 위한 필기시험이 실시됐다. 합격자는 28일 오후 4시 광주시 홈페이지(kwangju.go.kr)에 공고된다. (광주시 제공)

병원, 환자 입원前 보증금 요구 못한다

수술 부작용·위험성 의사 설명 의무 강화

환자 입원 전에 병원이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수술의 부작용 및 위험성에 대한 의사의 설명 의무가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입원 약정서 표준약관과 수술동의서 표준약관을 각각 개정했다고 밝혔다.

입원 보증금의 경우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의해 금지된 상태이지만 규정이 불분명하고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아 보증금 관행이 계속됐고, 환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줬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또 입원약정서 표준약관에 의료분쟁 소송이 제기될 경우 관할 법원은 병원 소재지 법원이 아니라,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복 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환자 편의를 제고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의료기관에 귀중품 보관장소 설치 의무화하는 한편, 환자 연대보증인의 채무한도와 보증기간을 협상을 통해 개별적으로 약정에 약관에 명시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강진 찾은 '천하무적 야구단'

내일까지 베이스볼파크서 훈련·친선경기

'천하무적 야구단(사진)'이 스포츠 메카 강진을 찾았다.

군은 KBS 2TV 인기 프로그램 '천하무적 토요일'의 천하무적 야구단이 28일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강진베이스볼파크에서 동계 훈련 및 친선경기를 갖는다고 27일 밝혔다.

28일 월요일 정오부터 촬영되는 이번 대회에는 첫날 자체 야구 경기를 갖고, 이튿날 정오에는 강진군 사회인 야구클럽들로 구성된 강진 올스타팀과 한관승부를 벌이게 된다.

이번 한관승부에서는 강진 올스타 팀이 지게 되면 천하무적 야구단의 내년 속원사업인 '꿈의 구장' 건설 기공식에 강진특산품을 지원하게 된다. 또 이기게 되면

천하무적 제작진이 강진홍보 CF를 찍어줄 예정이어서 흥미로운 대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진군은 천하무적 야구단 제작진 140여명을 비롯한 많은 관중들이 강진베이스볼파크를 찾을 것으로 예상. 원활한 촬영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해 아낌없는 지원을 할 계획이라며 관람객들에게는 질서유지와 신속한 관람을 당부했다.

천하무적 야구단이 기획하고 있는 2010년 목표인 '꿈의 구장' 건설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인 상호협력기 필요한데 이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곳이 바로 강진이어서 이번에 찾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

빛의만평

- 김중두



그런소리 말고 '날치기'나 막으세요

지역민 올해 전남도정 최대 뉴스

"F1 지원법 제정·조직위 출범"

전남도민과 공무원들은 올해의 전남도정 최대 뉴스로 '포틀러원(F1)대회 지원법 제정 및 조직위 출범'을 꼽았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민과 공무원 등 총 1천534명을 대상으로 올해 도정 10대 뉴스 인터넷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870명(56.7%)이 F1 지원법 제정 및 조직위 출범에 따른 '2010년 F1대회 순환'

을 올해 최대 뉴스로 선정했다.

이번 10대 뉴스 선정은 올해 도내 안팎에서 관심이 쏠렸던 22개 주요 도정뉴스 중 10개 항목을 복수 선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F1대회' 다음으로는 ▲친환경 농업 전국 1위(731명·47.7%) ▲고흥 우주산업도시 도약 발판 마련(542명·35.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유치(466명·30.4%)

▲여수엑스포 기공식(434명·28.3%) 등의 순이었다.

이밖에 ▲영산강살리기 사업 기공식 ▲전남 갯벌 천일염 명품화 기틀마련 ▲J프로젝트 삼호지구 내년 첫 삽 ▲슬로시티 녹색관광 대표상품 육성 ▲광주~오송 간 대호고속철도 기공식 등이 올해의 10대 뉴스로 선정됐다.

오주승 전남도 공보관은 "올해에도 전남지역에서 이뤄진 다양한 사업과 행사들이 지역민들의 관심을 모았다"면서 "F1대회는 많은 우여곡절 끝에 지원법 제정을 이끌어 낸 점이 주목을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최권열기자 cki@kwangju.co.kr

영산강 등 4대강에 수상비행장 만든다

국토부 추진 검토

낙동강, 한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에서 수상비행기를 타고 내릴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수상비행장 설치 기준이 마련된 것과 관련해 4대강 강에서 수상비행장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건설하는 보에 물을 가득 채워 수상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것이 가능하다"며 "늘어나는 항공레저 수요에 대비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수상비행장 건설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수상비행장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항공법령과 기준을 내년 5월까지 마련하고, 이후 본격적인 사업 검토에 들어갈 계획이다.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면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마무리되는 2012년 이후에는 4대강의 일부 보 인근에서 수상비행기가 뜨고 내릴 전망이다.

국토부는 15인승 내외 수상비행기 가두면 수상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것이 가능하다"며 "늘어나는 항공레저 수요에 대비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수상비행장 건설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軍 신병교육 기간

최대 2배 상향 검토

군 당국이 병사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전투력 약화를 막기 위해 신병교육 훈련 기간을 최대 2배 가량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한 관계자는 지난 26일 "지난 9일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논의됐던 신병교육훈련 강화 방침에 따른 후속 방안을 연구 중"이라며 "훈련소에서 5주간 기초 군사훈련을 받고 나서 연대급 부대에서 별도의 집체교육을 받는 방안을 대안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별도의 집체교육은 병사 특기별로 전문화 기술을 지도해 자대에 배치된 순간부터 즉각 임무를 수행토록 3~5주간 진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0년 1월 1일
한국환경공단 Keco가 이루어 가겠습니다

녹색 선진국을 향한 우리들의 꿈
한국환경공단 Keco가 이루어 가겠습니다

한국환경공단 Keco